

한 국 사

[강평 및 해설 : 이명호 교수]

총 평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사 시험에서 꼭 다뤄야 할 주요 의제들이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본 수험생들의 반응처럼, 정말 오랜만에 '쉬웠다'는 평가를 받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쉬웠다', '어려웠다'의 평가는 그 목표점수를 몇 점에 두고 한 평가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무난한 문제들이 많았던 이번 시험에서는 그 목표 점수가 90점 정도였다면 '쉬웠다'고 평가할 수 있지 몰라도,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단 몇 문제가 까다로웠어도 함부로 '쉬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론 수업과 문풀 수업을 통해 좋은 다뤄왔던 '핵심'이 출제되었으므로 커리큘럼을 잘 소화하신 분들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몇 개의 까다로운 지문에도 불구하고 '내가 답입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낸 답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을 잠깐 하고 정답을 고르는' 형태로 문제풀이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나?> (번호: "나"책형 기준)

번호	내용	비고
1	청동기 시대 유적과 유물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유적유물과 비교하는 문제
2	부여와 동예의 풍속	고구려, 삼한의 풍속과 비교하는 문제
3	인종 재위 기간 사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연결하는 문제
4	1910년대 사건 발생 시기	독립의군부 조직 시기(연도)를 묻는 문제
5	조선 성종 대 편찬된 서적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를 연결하는 문제
6	전시과 제도의 특징	시정전시과와 경정전시과, 과전법, 역문전을 구분하는 문제
7	을미사변과 을사늑약 사이의 사건	황국중앙총상회 조직 시기(연도)를 묻는 문제
8	발해 무왕의 업적	'족수말갈-담'과 장문후의 산동지방 공격을 연결하는 문제
9	한국독립군의 활동	사도하자 전투와 동경성 전투를 연결하는 문제
10	임진왜란 이후 경제 활동	신해통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
11	역사서 등에 나타난 단군에 대한 인식(전 시대 종합)	제왕운기, 동국역대총목, 동명왕편, 기미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단군인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
12	삼국유사의 특징	삼국유사 기이편 서문과 '민간 설화 수록'이라는 삼국유사의 특징을 연결하는 문제
13	동학농민운동	전주화약 이전 사건과 이후 사건을 구분하는 문제
14	신라 중대의 경제 상황	신문왕(9주5소경)과 해공왕(대공의 난)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고르는 문제
15	우리나라 문화 유산(전 시대 종합)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미륵사지 석탑을 구분하는 문제
16	서원의 특징	사림파가 세운 '서원'을 제시하고 그 '서원'의 기능을 연결하는 문제
17	개화기 근대적 조약	'무제한 곡물유통, 무항세'와 조일무역규칙을 연결하고, '청의 알선, 거중조정 등'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연결하는 문제
18	조선 시대 관청의 기능	사간원, 승정원, 사헌부, 교서관, 홍문관 등의 기능과 이조전령의 기능을 묻는 문제
19	박은식의 활동	유교신론과 한국통사를 연결하는 문제
20	광복 후 대한민국 수립 과정	건준, 모스크바 3상회의,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나?>

형식적으로 보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1문항 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립의군부 문제, 황국중앙총상회 문제, 전주화약 문제는 결국 역사적 사실의 발생 시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연도를 명확히 외우고 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연도는 꼭 외우도록 합시다.

연관된 개념을 '연결'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자겸의 난에서 '인종'을 발견하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과 관련된 대화공을 고르는 문제, 경국대전 완료에서 '성종'을 발견하고 국조오례의로 연결하는 문제, 한국독립군의 사도하자 전투와 동경성 전투를 연결하는 문제 등 하나의 주 개념 아래에 있는 두 가지 구체적 사항을 연결시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개념 아래에 그 시기와 특징, 관련된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전 시대에 걸쳐 고루 출제되었으며, 모든 시대에 걸친 '종합 문제'도 2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어떤 한 시대에 치우쳐 공부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다뤄진 문제들을 '주제'로 삼아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조정되어 다음 시험에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1.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 ② 창원 다호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되었다.
- ③ 강화 부근리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 ④ 서울 암사동에서는 곡물을 담은 빗살무늬토기가 나왔다.

정답 ③

강화 부근리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데, 주검의 위치와 무덤의 형태에 따라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구분된다. 북방식(탁자식) 고인돌은 땅 위에 넓적한 판돌(板石)을 세워 긴 네모꼴의 무덤 칸을 만들고 그 안에 주검을 넣은 뒤, 그 위에 크고 넓은 덮개돌(上石)을 덮는다.

- ① 경기도 연천 전곡리는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 유럽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와 동아시아 짝개가 발견되었다.
- ② 경남 창원 다호리는 대표적인 철기 시대 유적지로,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되었다.
- ④ 서울 암사동은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지로, 빗살무늬토기가 다수 발견되었다.

0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다.
 (나) 해마다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 『삼국지』 -

- ① (가) - 5부가 있었으며,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 ② (가) -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읍차 등이 있었다.
- ③ (나) -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 ④ (나) -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보상하였다.

정답 ④
 (가) 음력 12월(은력 정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던 나라는 '부여'이다. (나) 해마다 10월에 무천(舞天)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던 나라는 '동예'이다.
 ① 대표적인 부족으로 5부가 있었으며, 처음에는 소노부가 강했으나 태조왕 때부터 계루부에서 왕위를 독점하였던 나라는 '고구려'이다.
 ②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견지, 읍차, 부례 등이 있었던 나라는 '삼한'이다.
 ③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던 나라는 '삼한'이다.
 ④ 산과 강마다 각각 구분이 있어 다른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으며, 혹시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였던 나라는 '동예'이다.

03. (가) 왕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중략) …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하니 (가) 이/가 그 의견을 따랐다. - 『고려사』 -

- ①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 ②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례」를 보급하였다.
- ③ 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하고 친제건원을 주장하였다.
- ④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정답 ③
 '이자겸의 난'의 주요 인물이었던 '이자겸, 척준경'이 활동하였고, 이들이 금나라에 대한 사대수락을 주장하였던 시기는 고려 인종(1122~1146) 때이다.
 ③ 인종은 요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하였다(1129). 그리고 친제건원 및 서경천도에도 모두 긍정하였다. 이후 김부식 등 개경세력의 항의에 따라 그 태도를 바꾸기는 하였으나, 처음에 친제건원 및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는 말은 옳다.
 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확대·개편된 것은 충렬왕 때이므로,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 주도'라는 말은 원간섭기 때부터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② 성리학을 수용한 것도 충렬왕 때이므로, 이 말도 원간섭기 때부터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④ 강화천도(1232)는 무신정권기 후반 고종 때에 이루어졌다.

04. 밑줄 친 ㉠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 (중략) …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즐기치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 네루, 『세계사 편력』 -

- ①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 ②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④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정답 ③
 임병찬이 (대한)독립의군부는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3·1 운동) 이전인 1912년에 조직되었다. ① '암태도 소작쟁의'는 3·1 운동 이후인 1923~1924년에 발생하였다.
 ② '정우회 선언'은 3·1 운동 이후인 1926년에 발표되었다.
 ④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는 3·1 운동 이후인 1922년에 창립되어, 이듬해에 조선민립대학기성총회를 개최하였다.

05. 밑줄 친 '성상(聖上)'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科目)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만대의 성법(成法)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셨다.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聖上)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여섯 권의 법전을 완성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셨다.

- ① 『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 ② 『동몽선습』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이다.
- ③ 『삼강행실도』는 모범적인 효자·충신·열녀를 다룬 윤리서이다.
- ④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이다.

정답 ④
 '세조의 뜻'을 받들어 만들기 시작한 '자손만대의 성법'인 '여섯 권의 법전'이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말한다. 그 법전을 '완성'한 '성상(聖上)'은 조선 성종(1469~1494)이다.
 ④ 성종 때 신숙주, 정척 등이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등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를 간행하였다(1474).
 ① 『동국병감』은 김충서에게 의해 문종 때 편찬되었다.
 ② 『동몽선습』은 박세무에 의해 중종 때 편찬되었다.
 ③ 『삼강행실도』는 설순 등에 의해 세종 때 편찬되었다(1434).

06. (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로소 직관(職官)·산관(散官) 각 품(品)의 (가) 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 『고려사』 -

- ①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 ②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 ③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하였다.
- ④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정답 ①
 경종 1년(976) 11월에 비로소 직관(職官)·산관(散官)의 각 품(品)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관품(官品)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만 가지고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자삼, 단삼, 비삼, 녹삼의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것을 '시정 전시과'라고 한다.
 ②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된 것은 '경정 전시과'이다.
 ③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한 것은 '과전법'이다.
 ④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것은 '역분전'이다.

07.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을미사변 발발	을사조약 강제 체결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전개	

- ① (가) -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② (가) -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③ (나) -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을 내렸다.
- ④ (나)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창설되었다.

정답 ①
 을미사변은 1895년에 발발하였고, 을사조약은 1905년에 체결되었으며, 서울진공작전은 1908년에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가)는 1895-1905년이고, (나)는 1905-1908년이다.
 ①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때는 1898년이므로, (가)에 들어간다.
 ② 신민회가 105인 사건으로 와해된 때는 1911년이므로, (나) 이후이다.
 ③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내린 때는 1889년이므로, (가) 이전이다.
 ④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창설된 때는 1904년이므로, (가)에 들어간다.

08. (가) 왕대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또한 일본에 사신 고제덕 등을 보내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蕃)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여 강국임을 자부하였다.

- ①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꾸었다.
- ② 신라는 급간 승정을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 ③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정답 ④
 흑수말갈이 당과 직접 교류를 시도하자, 흑수말갈과 당을 모두 공격한 발해의 왕은 무왕(719-737)이다. 무왕은 장문휴로 하여금 당의 산둥지방(등주)을 공격하게 하였다(732).
 ① 국호를 진국(震國)에서 발해로 바꾼 왕은 고왕(698-719)이다.
 ②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원성왕 때 발해에 일길찬 백어(伯魚)를 사신으로 보내고(790), 헌덕왕 때 급찬 승정(崇正)을 사신으로 보냈다(812). 급찬 승정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고, 그 파견된 때가 9세기 초라는 사실만 전해진다. 812년은 발해의 정왕의 죽고, 희왕이 즉위하던 해로, 선왕(818-830)이 즉위하기 6년 전이다.
 ③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왕은 문왕(737-793)이다.

09.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군은 사도하자에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적군은 황가둔에서 이도하 방면을 거쳐 사도하로 진격하여 왔다. 그런데 적군은 아군이 세운 작전대로 함정에 들어왔고, 이에 일제히 포문을 열어 급습함으로써 적군은 응전할 사이도 없이 격파되었다.

- ①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였다.
- ②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하였다.
- ③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동경성 전투도 수행하였다.

- ④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정답 ③
 제시된 자료는 한-중 연합작전의 전투 중 하나인 사도하자 전투(1933)에 관한 것이다. 이 전투를 이끌었던 한국인 부대는 한국독립군이다.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이 이끌었으며,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대전자령 전투·동경성 전투·쌍성보 전투·사도하자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①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던 군사 조직은 ‘조선혁명군’이다.
 ② 미쓰야 협정은 1925년에 체결되었다. 한국독립군은 주로 1932-1933년에 활동하였다.
 ④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한 군사 조직은 ‘조선의용대’이다.

10. 밑줄 친 ㉠~㉣과 관련된 임란 이후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서울 안팎과 변화한 큰 도시에 파마늘·배추·오이 밭 따위는 10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 지방의 ㉡ **담배 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 밭, 강진의 ㉢ **고구마 밭**, 황주의 지황 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대전(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작은 보습으로 이랑에다 고랑을 내는데, 너비 1척, 깊이 1척이다. 이렇게 한 이랑, 즉 1묘 마다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들면, 두둑의 높이와 너비는 고랑의 깊이와 너비와 같아진다. 그 뒤 ㉣ **고랑에 거름 재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 ① ㉠ -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② ㉡ -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 ③ ㉢ - 『감저보』, 『감저신보』에서 재배법을 기술하였다.
- ④ ㉣ - 밭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었다.

정답 ①
 정조는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제외한’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1791).
 ② 담배는 조선 후기에 인삼, 쌀, 목화, 채소류 등과 함께 대표적인 상업작물(상품작물)로 재배되었다.
 ③ 조선 후기에 들어 고구마가 널리 재배되었다. 중남미가 원산인 고구마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진출 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가 필리핀-중국-유구-일본(대마도)을 거쳐 조선에 전래되었다. 1763(영조 39)년 조선 통신사로 일본에 간 조엄(趙彥)은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보고 부산에 종자를 보냈다. 조엄이 대마도에서 고구마 종자를 부산에 보낸 이듬해 봄 부산진 첨사 이응혁은 절영도(부산 영도)에서 시험 재배를 시작하였고, 1765년 동래 부사 강필리(姜必履)는 고구마 재배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강필리는 『감저보(甘藷譜)』를 저술하여 고구마 보급에 공헌하였다. 이후 고구마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보급되었고 이와 함께 관련 저술도 이어졌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김장순의 『감저신보(甘藷新譜)』(1813)와 서유구의 『증저보(種藷譜)』(1834)이다.
 ④ ‘고랑에 거름 재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하는 농법을 견종법이라 한다. 견종법은 발작물을 파종하는 방식으로 이랑과 이랑 사이에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이랑과 이랑 사이를 견(畝, 고랑)이라고 하는데, 견에 파종한다는 의미로 견종법이라고 칭한다. 이는 이랑에만 파종을 하는 농종법(農種法)과 차이가 있다. 견종법이 확산되기 이전에는 이랑과 이랑 사이는 물이 배수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별달리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기장이나 보리와 같은 겨울 작물들을 고랑에 파종하기 시작했다. 고랑에는 작물이 겨울을 지나는 사이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육 환경이 마련되었고, 비교적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는 보습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역적 편차는 있지만 견종법은 발작물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에 확산되어 농업 생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11.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 ④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정답 ③

「동명왕편(東明王篇)」은 이규보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 주몽에 대해 쓴 장편 서사시이다. 1400여 자의 시(詩)에 2200여 자의 주석이 달려 있으며, 내용상 서장(序章), 본장(本章), 종장(終章)의 총 3장으로 되어 있다. 서장에서는 동명왕 탄생 이전의 계보를 다루고, 본장에서는 동명왕의 출생에서부터 건국까지, 종장에서는 후계자인 유리왕의 사적과 작가의 감상을 적고 있다. 「동명왕편」은 『구삼국사(舊三國史)』에서 소재를 취하여 『삼국사기』에서는 제외된 고구려의 신이한 건국 사적을 서술함으로써, 고려가 성스러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자부심을 전하려는 의도에서 저술된 것으로, 단군의 건국 과정은 다루고 있지 않다.

- ① 『제왕운기』는 이승휴가 총령왕 때 지은 장편 서사시이다. 이 책은 5연, 7연 형식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루었는데, 상·하 2권 1책으로 되어 있다. 상권은 중국 역사를 서(序)에 이어 신화 시대부터 원(元)의 등장까지 다루고 있다. 하권은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동국군왕개국연대(東國君王開國年代)'와 '본조군왕세계연대(本朝君王世系年代)'의 2부로 나누어져 있다. 동국군왕개국연대에는 서(序)에 이어 지리기(地理記), 단군의 전조선(前朝鮮), 후조선(後朝鮮), 위만(衛滿), 삼한(三韓), 신라·백제·고구려의 3국과 후삼국 및 발해가 고려로 통일되는 과정까지 다루었고, 본조군왕세계연대에는 고려 태조부터 당대인 충렬왕 때까지 기록하였다. 즉 『제왕운기』는 단군 조선을 한국사의 기원으로 설정하여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우리 역사를 단군을 정통으로 하여 시작하였으며, 유교·불교·도가의 삼교회통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중국과 대등하게 보았다.
- ④ 「기미독립선언서」란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인사동 태화관에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독립 선언서」를 말한다. 이 선언서의 작성년도는 고조선이 건국된 기원전 2333년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하였다. 다음은 「기미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부분이다.

공약 3장

1. 오늘날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마라.

1.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1.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조선 건국 4252년 3월 일
조선 민족 대표

12.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중략) ...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神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紀異)」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 ①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 ②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③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④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이편」 서문이다.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의 고승 일연(1206~1289)이 불교적 입장에서 삼국 시대의 주요 사건과 일화를 편찬한 역사서로, 고대 민간 설화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 ①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란 설명에 가장 합당한 역사서는 고려 고종 때 승려 각훈이 지은 『해동고승전』이다.
- ③ 『삼국유사』는 원간섭기인 총령왕 때 간행되었으므로 '고려 말'의 역사를 다룰 수는 없었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처음으로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는 『동국통감』이다.
- ④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한 역사서에는 다수가 있을 것이나, 이전의 기출 문제를 고려할 때 『삼국사기』를 말하는 것이다.

13.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폐정 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가)을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 ①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 ②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 ③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 ④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정답 ④

농민군이 폐정 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맺은 (가)는 전주화약(全州和約)을 말한다. 전주화약은 1894년 5월에 맺어졌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가)의 체결 이후'란 1894년 5월 이후를 말하는데, 화약 직후의 사건 또는 동학 2차 봉기와 관련된 사건이 답이 될 것이다.

- ④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한 시기는 동학의 2차 봉기 때이다.
- ①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한 시기는 전주화약 이전인 동학 1차 봉기 때이다.
- ②, ③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고,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한 시기는 1894년 1-2월이다.

14. (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 ②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하였다.
- ③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 ④ 청주(菁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

정답 ①
 (가) 시기란 9주 5소경 설치(685년, 신문왕)와 대공의 난(768년, 혜공왕)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가) 시기에는 신문왕(685년 이후), 효소왕, 성덕왕, 효성왕, 경덕왕, 혜공왕(768년 이전) 때의 사건이 들어갈 수 있다.
 ①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한 왕은 성덕왕이다(722).
 ②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한 왕은 지증왕이다(509).
 ③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한 왕은 고구려 고국천왕이다(194).
 ④ 청주(靑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은 왕은 소성왕이다(799).

15.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 ③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정답 ③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된 석탑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아니라, 미륵사지(彌勒寺址) 석탑이다. 2009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미륵사지 서탑(西塔)의 보수 정비를 위한 해체 조사 과정에서 석탑 1층에서 금제 사리호와 금제 사리봉안기(金製舍利奉安記), 은제 관식 등 유물 500여 점을 발견하였다. 금제 사리봉안기에는 백제 왕후가 재물을 희사하여 가람을 창건하고 639년(무왕 40년)에 사리를 봉안하여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비로소 (가) 을/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자못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중략)… 최종,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광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가) 을/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 『퇴계집』 -

- ① 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이다.
- ②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 ③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 ④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정답 ④
 ‘주세붕’이 처음으로 세웠고,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광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건립하게 되는 건축물은 ‘서원’이다. 서원은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봉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사학)이다.
 ① 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은 ‘향교’이다.
 ②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친 교육기관은 ‘서당’이다.
 ③ 4학이나 향교의 성적 우수자는 ‘소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고, 성균관의 성적 우수자는 ‘대과(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바로 복시를 볼 수 있었다).

17. (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 지은 것은?

(가)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 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최해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 | |
|-------------|-----------|
| (가) | (나) |
| ① 조·일무역규칙 | 조·미수호통상조약 |
| ② 조·일무역규칙 | 조·러수호통상조약 |
| ③ 조·일수호조규부록 | 조·미수호통상조약 |
| ④ 조·일수호조규부록 | 조·러수호통상조약 |

정답 ①
 (가) 무제한 곡물 유출, 무항세, 무관세 등을 골자로 하는 조약은 조·일무역규칙(1876)이다. (나) 청의 알선으로 체결되었으며, 거중조정 조항과 최해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된 조약은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이다.

18.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밑줄 친 ㉠ ~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66년(31세) ㉠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다.
 1568년(33세) ㉡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1569년(34세) 동호독서당에 머물면서 동호문답 을 찬진하다.
 1574년(39세) ㉢ 승정원 우부승지에 제수되어 「만언봉사」를 올리다.
 1575년(40세) ㉣ 홍문관 부제학에서 사퇴하고 『성학집요』를 편찬하다.

- ① ㉠ -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하였다.
- ② ㉡ -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 ③ ㉢ -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 ④ ㉣ -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정답 ②
 ①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한 관청은 승정원이다.
 ②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던 관직은 이조전랑(이조정랑 및 이조좌랑)이다.
 ③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던 관청은 사헌부이다.
 ④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하였던 관청은 교서관이다.

19.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敎化界)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전해주고 밝혀 준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한은 어찌서이며 … (중략) …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 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하고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 ① ‘조선열’을 강조하며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 ②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주석·부주석 체제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하였다.
- ④ 『독사신론』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하였다.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유교구신론(儒敎求新論)」이라는 글의 첫 부분이다. 이 글은 박은식(1859~1925)이 유교의 개량과 혁신을 주장한 글로서, 1909년 3월에 나온 『서북 학회 월보』 제1권 제10호에 게재되었다. 저자는 겸곡생(謙谷生)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박은식의 필명이다.
 ② 박은식은 1910년대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근대 이후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韓國痛史)』(1915)를 저술했고, 3·1 운동 직후에는 독립투쟁사를 기록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를 남겼다. 특히 『한국통사』에서는 물질적인 백(魄)을 잃더라도 정신적인 혼(魂)을 간직하면 백이 부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써 민족혼이 살아나야 민족이 흥할 수 있다는 ‘국혼론’을 주장했다. 또한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① ‘조선열’을 강조하며 ‘조선학 운동’을 펼친 인물은 정인보(1893~1950)이다.
 ③ 주석·부주석 체제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한 인물은 김구(1876~1949)이다.
 ④ 『독사신론』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한 인물은 신채호(1880~1936)이다.

20.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 ① (나) → (가) → (라) → (다)
- ② (나) → (다) → (가) → (라)
- ③ (다) → (가) → (나) → (라)
- ④ (다) → (나) → (가) → (라)

정답 ②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1945. 8. 16).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1945. 12. 28).
 (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1946. 10).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1948. 4. 19).